



6. 다음은 '연상하기' 수업 장면이다. 과제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옆의 동그라미를 바탕으로 평면과 입체, 모양과 속성 등에 따라 하나의 구체적 대상을 떠올리고 '삶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연상 내용을 써 보세요.



	대 상	연 상 내 용	
평면	일정한 속도로 끊임 없이 바늘을 돌리는 시계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땅에서 잠시도 떨어 지지 않고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밟고 있는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②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는 10원짜리 동전	작고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③
입체	동그랗고 통통 튀는 공	모나지 않은 유연한 사고와 발랄한 태도가 삶을 윤기 있게 만든다.	④
	태양의 주위를 공전 하면서 동시에 자전 하는 지구	지나치게 깨끗하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⑤

7.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정리한 메모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기사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터뷰 내용  
·건강검진 항목이 형식적이라는 생각 - 45세, 직장인  
·질 높은 인적자원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은 이를 위한 필수 요소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 관계자

2. 관련자료 조사  
·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합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설문 조사 결과

생애주기	추진 요구사항
영·유아	예방접종, 영양관리
아동청소년	학교와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성장발달상태 평가
청·장년층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기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노년층	노인성 질환검사, 질병관리 부담액 경감

4. 국내외 현황  
·국내: 건강증진 예산은 치료부문 전체 예산의 1.35%에 불과.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증진 업무 서비스 부재  
·국외: OECD는 건강개선을 위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권고.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을 개선

- ①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항목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 ②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각 부처별로 분산시켜야함을 지적한다.
- ③ 건강증진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④ 생활체육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⑤ 질 높은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생애주기별 추진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8. '한자교육'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한자교육의 현황 ..... ㉠

1. 한자교육 열풍
2. 상업화된 조기 한자교육

II. 한자교육의 필요성

1. 한국어의 특수성 차원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58.5%를 차지하는 한자어
  - 나. 한자로 변별되는 다수의 동음이의어
  - 다.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중요성 ..... ㉡
2. 교육적 효과 차원
  - 가.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표의 문자
  - 나. 우리 한자와 다른 중국 실용 한자 ..... ㉢

III. 한자교육의 개선 방안

1. 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 개발
2.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한자교육 ..... ㉣

IV. 한자교육의 의미 ..... ㉤

1.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한자교육
2.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자교육

- ① ㉠은 하위 항목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한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고친다.
- ② ㉡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③ ㉢은 II-2를 고려하여 '독해력 향상에 필요한 한자'로 바꾼다.
- ④ ㉣은 III-1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서술한다.
-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한자교육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으로 바꾼다.

9. 다음은 '나의 각오'를 쓴 것이다.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나의 각오>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가정	따뜻한 말과 온화한 표정으로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자신	[A]
2009년 7월 14일 홍길동	

- <보 기>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자기계발과 관련시킬 것

- ①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② 지속적인 담금질로 나를 세워가겠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 ③ 이로움을 주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④ 나의 발자국이 타인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 ⑤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 <보기>는 '골목길'을 주제로 한 수필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좁은 골목길 끝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골목길은 기본에 따라 ㉡빨갛춌처럼 즐었다 늘었다 했다. ㉢또한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면 골목길이 길게만 느껴졌다. 골목의 끝이 영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하루는 하룻길에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왔다. '조금만 참자. 참을 수 있다.'라고 속으로 주문을 ㉣비록 외위도 길은 하염없이 이어졌다. 이마에 식은땀은 계속 흘러내렸고, 내 발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골목의 막다른 곳, 파란색을 칠한 낮은 때문에 다른 순간, 아랫도리가 무겁고 뜨뜻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골목을 뛰어다니며 나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 ①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을 '우리 집의 위치는 좁은 골목길 끝에 있었다'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비유적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고무줄'로 바꿔야겠어.
- ③ 글의 완결성을 위하여 ㉢에 골목길이 짧게 느껴졌던 기억을 한두 문장 추가해야겠어.
- ④ ㉣은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아무리'로 고쳐야겠어.
- ⑤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을 바로 뒤의 문장과 맞바꿔야겠어.

11.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에'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합의/협의  
 가. 선거 후보자들은 상대편 비방 금지에 (합의/협의)했다.  
 나. 참가자들은 행사 규칙을 수차례의 (합의/협의) 끝에 마련하였다.  
 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그녀와 (합의/협의)할 의사가 없다.

○ 배부/배포  
 라. 합격 통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배포)되었다.  
 마. 개업을 알리는 광고 전단을 전 지역에 (배부/배포)했다.  
 바. 시청에서는 산림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신청자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배부/배포)하고 있다.

- ① 가과 나을 보니 '합의'는 '결과', '협의'는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네.
- ② 기~디을 보니 '합의'와 '협의'는 '무엇에'나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과 같이 쓰이는군.
- ③ 기~디을 보니 '합의'와 '협의'는 모두 '외/과'가 없을 경우 다수를 뜻하는 주어가 오는군.
- ④ 라과 마을 보니 '배포'는 '배부'와 달리 특정 대상이 있다고 볼 수 있네.
- ⑤ 바을 보니 '배부'는 종이나 서류 외의 것을 나눠 준다고 할 때도 쓰일 수 있군.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4·3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교사가 된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 휘진의 등록금을 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다. 어느 날 '나'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교무실로 찾아 온 휘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죽인 토벌대원인 박춘보임을 알게 된다.

좀 가까이 걸어가다 말고 나는 주춤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미칠 듯 뛰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다시 한 번 눈여겨보았으나 영락없이 그 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 설마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닐 테지. 그러나 내 책상 귀퉁이에는 노인이 가져온 듯한 보따리가 놓여져 있었다. 내 얼굴을 알 리 없는 노인은 건성 이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두 손을 맞비비고 있었다.

㉡본디 바탕색이 무엇인지 모르게 허여덜겅게 탈색된 여름잠바 밑으로 뻗어 있는 바짝 마른 삭정이 같은 두 팔, 불거진 광대뼈 아래 양볼은 우뚝하게 주저앉고 눈 가장자리도 푹 꺼져 있었다. 게다가 살갗은 벌레 타서 검은 흙빛이었다. 뜨거운 여름 해에 물기를 다 빼앗긴 듯이 노인은 더운 교무실 안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이가 바로 휘진의 아버지, 박춘보 씨였다. 박춘보 씨라는 이름도 바로 그날, 그이가 더덕뿌리 보따리를 놓고 돌아간 다음에 휘진의 환경조사서를 펼쳐 보고서야 알았던 것이다. 서로 말을 주고받아 본 것도 물론 그날이 처음이었다.

<중략>

토벌대 생활 삼 년째로 접어들던 늦여름에 그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골머리 위에서 척후활동을 하던 춘보 씨는 계곡을 끼고 내려오다가 문득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다. 풀숲에 찔쩍 엎드리고 소리나는 쪽을 살펴보았다. 말소리는 계곡 맞은편 밑 가지 덤불과 덩굴들이 서로 얽혀 무성하게 우거진 속에서 들려 왔다. “점호 시작!” 하는 구령이 떨어지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21번까지 번호 붙이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더니, “그러면 식사준비!” 하는 구령을 마지막으로 잠잠해졌다. 지휘하는 자까지 모두 22명, 그러면 저 덤불 속에 아지트로 사용하는 동굴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한 춘보 씨는 꺾겅음으로 산을 내려와 오 리 밖의 팡팡나무숲에 주둔하고 있던 본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적의 흥계인 줄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먼저 노출되어 들킨 것은 그들이 아니라 춘보 씨 자신이었다. 춘보 씨를 먼저 발견한 그들은 토벌대 본대를 그곳에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점호하는 시늉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십 명도 못 되는 인원을 22명으로 늘려 번호 붙인 것도 이쪽 병력을 되도록 많이 유도해 보자는 계략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토벌대 32명 전원은 그 지점이 위치한 계곡 입구에 들어서고 만 것이었다. 비탈 위에 숨어 기다리던 적은 서슴지 않고 일제사격을 가해 왔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대원들은 급히 바위 뒤로 곤두박질치듯 뛰어들어 몸을 가렸다. 불과 3, 4분 동안의 짧은 교전이였다. 토벌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사격 자세를 갖추자 적은 미련 없이 후퇴해 버린 것이었다. 불리한 위치에서 선제공격당한 이쪽의 피해는 전사 5명에 부상 3명이었다. 다행히 그 마른 계곡에는 몸을 얽매할 수 있는 바위들이 많아서 그 정도 피해로 그쳤지, 자갈이나 모래바닥이었다면 몰사당할 뻔했던 것이다.

“이렇게 내 불찰로 다섯 명이 죽고 세 명이 병신 되었는데

그것이 무신 상 받을 일이라고 비뚤장 좋게시리 옛날 대원을 찾아 증인 서달라고 협네까. ㉢나도 그 골짜에서 총 맞아 똥져 부러야 허는 건디 별찮은 목숨, 안죽겨정 살아 가지고…….”

삼 년 동안 한라산의 눈비를 같이 맞으며 고생하던 대원이 바로 곁에서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본 춘보 씨는 심한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게다가 그 일로 인해 적과 내통한 혐의를 받아 호되게 조사당하기까지 했으니 모두 전향자라는 터무니없는 낙인 때문이었다. 혐의가 풀려 다시 원대복귀는 했지만 대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특히 육지 출신 중에는 노골적으로 의심하고 나오는 대원들이 더러 있었다. 이때부터 춘보 씨는 사람이 영 판관으로 달라져 버렸다.

㉣의심받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신상에 위해가 올 것이 틀림없었다. 의심받는 전향자라는 꼬리표를 떼내어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못 할 것이 없었다. 이제 춘보 씨는 흡사 신들린 사람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고 폭도를 찾아 나섰다. 미 고문관으로부터 광목 한 통을 상으로 받은 것도 이때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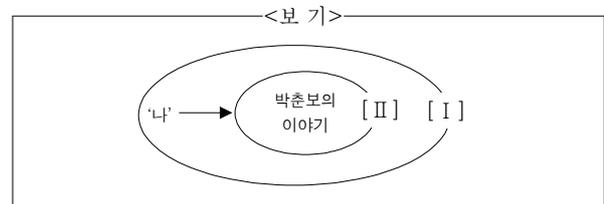
노루오름 근처의 냇가 동굴에서 산사람들의 아지트를 발견한 그는 단신으로 뛰어들어 폭도 3명을 생포해 냈던 것이다. 소맷부리에서 개머리판 없는 카빈을 불쑥 내밀고 이빨로 포승줄을 풀어 셋을 차례차례 굴비 엮듯 오아맨 애기를 손짓을 섞어 가며 할 때 춘보 씨의 눈빛은 동물처럼 민첩하고 날카로웠다. 눈 뿌리가 일순 빨갱게 타오르는 것을

[A] 본 나는 가슴이 섬뜩했다. 바로 이 대목부터다! 아버지의 죽음이 끼어 있는 것은,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개머리판 없는 카빈총!  
나는 다음 무슨 말이 나올까 바짝 긴장해서 노인의 입을 주시했다. 그러나 노인은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입 안에서 웅얼거리더니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눈빛이 다시 입김 쏘인 거울처럼 흐려졌다.

[뒷부분 줄거리] 박춘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과거 행위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침내 '나'는 박춘보를 용서하리라 결심한다. 아버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가 묻힌 자리라도 알고 싶었던 '나'는 휘진의 집을 찾아가지만, 휘진의 집에서 '나'를 기다린 것은 박춘보의 죽음이었다.

- 현기영, 「길」

13.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야기 [I]과 이야기 [II]의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이야기 [II]는 이야기 [I]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이야기 [II]는 이야기 [I]의 '나'가 듣고 정리한 이야기이다.
- ④ 이야기 [I]의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야기 [II]에 주목하고 있다.
- ⑤ 이야기 [I]은 어른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 [II]는 어린이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진술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외양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
  - ③ ㉢: 인물의 내적 고뇌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 ④ ㉣: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낸다.

15. <보기>는 [A]부분을 회색으로 각색한 것이다. ㉠과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박춘보: 노루오름 근처의 냇가 동굴에서 산사람들의 아지트를 발견했을 때, 그냥 뛰어들이지요. (손짓을 섞어 가며) 소맷부리에 숨겨 두었던 개머리관 없는 카빈을 내밀고 이빨로 포승줄을 풀어 셋을 굴비 엮듯 읊어댔지요.

나 :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개머리관 없는 카빈총!  
( ㉠ ) 그, 그래서요?

박춘보: 단신으로 뛰어들어 폭도 3명을 생포했지만…….  
(말끝을 흐리며) 난 죄 많은 사람이우다.

나 : ( ㉡ ) 그, 그, 그리고는…….

	㉠	㉡
①	초조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②	의아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며
③	못마땅하다는 듯이	몸을 반쯤 일으켜 다가가며
④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눈을 지그시 감으며
⑤	다음 말을 기대하는 듯이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16. <보기>는 '나'가 '박춘보'를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보기>와 위 글을 연결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높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재를 살아내는 최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무엇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나무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다만,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비와 바람과 구름이 거쳐 간 그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로 서 있을 뿐이다.

- ① ㉠를 통해 이제 깡마른 노인으로 변해버린 '박춘보'를 그리고 있군.
- ② ㉡를 통해 '박춘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썼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갖게 되었던 아픔을 표현하고 있군.
- ④ ㉣를 통해 토벌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싶었던 '박춘보'를 그리고 있군.
- ⑤ ㉤를 통해 '박춘보'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역사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매에서 존 레논의 기타가 구입 가격의 1만 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경매에서 낙찰의 기쁨을 얻은 승자는 그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기쁨만큼 가격을 지불했고, 판매자도 높은 가격에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찰자가 얼마 가지 않아 레논의 기타에 싫증을 낸다면, 그 물건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낙찰가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결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원유의 채굴권이 경매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누구도 매장량과 상업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A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정확하게 가치를 산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매에서 채굴권이 A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가장 낙관적으로 과대평가한 B기업이 채굴권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경우 채굴권을 따낸 승자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패자가 된다. 이런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너무 용기 있게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구매자가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가격을 부른다. 그 결과 적절한 가격에서 효율적인 교환이 성립된다.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교환'이라는 말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에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가 1만 원인데, 2만 원에 판매하거나 8,000원에 판매한다면 누군가가 손실을 부담하므로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정확히 1만 원에 판매한다면, 양자가 서로 만족하면서 교환하므로 효율적인 거래가 성립된다. 1만 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가격도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독점가격은 비효율적이고 경쟁가격이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매는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해주는 과정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구매자가 모두 합리적이라면, 승자의 저주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미래가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거나,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 많이 거래될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경매를 통해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매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주가에 거품이 있는 것처럼, 경매가격도 턱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자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고통과 저주를 감당해야 한다.

17.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 선달은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주당 1만 원에 △△기업의 주식을 샀다. 한편 허 생원은 △△기업의 적정 주가가 주당 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포기했다. 얼마 후 △△기업의 주식이 하락하자 허 생원은 △△기업의 주식을 주당 8,000원에 살 수 있었다.

- ① 허 생원에게 △△기업의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결국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것이군.
- ② 김 선달은 허 생원에 비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낙관적으로 과대평가한 셈이로군.
- ③ 김 선달은 △△기업의 주가가 주당 1만 원일 때 매수의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이군.
- ④ 김 선달은 주당 2,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결정을 못한 셈이로군.
- ⑤ 허 생원은 △△기업의 주가가 8,000원일 때 주식 매도자와 효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군.

18.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제작사는 흥행을 목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섭외에 성공하여 영화를 만들었으나, 관객 동원에 실패하였다.
- ② B 과장은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로 남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으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
- ③ C 사원은 어려운 입사 시험을 통과하여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경제 위기 탓으로 자신이 기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 ④ D 감독은 다른 구단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하였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결국 해임되고 말았다.
- ⑤ E 사장은 무리한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에 성공하였으나, 그 후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인수합병을 후회하게 되었다.

19. 문맥으로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② 상품 가격이 안정되면 소비자의 지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 ③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 ④ 상품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으므로
- ⑤ 상품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판매자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류분석은 자아 상태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교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류분석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교류의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류분석의 기본 방법은 자아구조분석과 의사교류분석이다.

에릭번(Eric Berne)은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라고 부른다. ㉠자아구조 분석 단계에서는 세 가지 자아 상태의 내용과 기능에 주목한다. 부모자아 상태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보살피는 자세를 취하거나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이고, 성인자아 상태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 상태이다. 반면에 아동자아 상태는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의사교류분석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자아 상태의 상호 교류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다. 발신 내용이 보호적이거나 비판적일 때는 부모자아,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게 냉정히 전달할 때는 성인자아, 감정적·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 할 때는 아동자아 상태에서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발화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지지를 구하거나 원조를 얻으려는 경우는 부모자아, 상대방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구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또는 이성애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성인자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또는 상대를 약한 자로 대하는 경우는 아동자아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반응 방법을 관찰하고 점차 자신의 비생산적인 교류 방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보완적 교류, 교차적 교류, 저의적 교류 중 하나이다.

보완적 교류는 당신의 어떤 자아 상태가 상대방의 어떤 자아 상태에 보낸 자극에 따라 원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세 가지 자아 상태와 상대방의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행선을 이루는 교류다. 이러한 교류는 인정이나 어루만짐이 서로에게 보완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된다. ㉠교차적 교류는 상대방이 원하는 욕구가 무시되거나 잘못 이해되어 나타나는 반응의 교류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반응을 얻었을 때 당신은 당황할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면 대화가 중단된다. 저의적 교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교류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의사소통의 이면에 심리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교류로, 대화하는 사람이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자아 상태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교류, 교차적 교류와 ㉡다르다.

교류분석은 역기능적 대인 관계의 양상이 왜 생겼고 반복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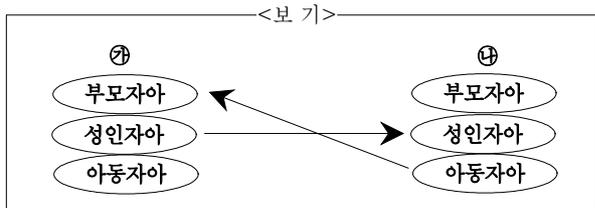
20. 위 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 가지 자아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②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 ③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역기능적 대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다.
- ② ㉠은 개인을, ㉡는 대인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
- ③ ㉠은 적절한 자극을, ㉡는 적절한 반응을 분석한다.
- ④ ㉠은 언어적 메시지를, ㉡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한다.
- ⑤ ㉠은 의사소구의 과정을, ㉡는 의사소구의 결과를 분석한다.

22. 위 글을 바탕으로 ㉠을 <보기>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와 ㉠의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이 문제는 짜증나서 못 풀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 그래. 내가 해결해. 맡겨 두라고!
- ② ㉠: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돼먹지 않았어. 너도 그래.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 ③ ㉠: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서 되겠니? 그러고도 고등학생이야?  
㉡: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만 봐주세요.
- ④ ㉠: 그건 품질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은데, 너의 판단은 어때니?  
㉡: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비싼 옷 입고 싶단 말이야.
- ⑤ ㉠: 아침을 못 먹어 배가 고프네요. 잠깐 나가서 뭐 먹고 오면 안 될까요?  
㉡: 아직 일과 시간 중이야. 점심시간에 가자.

23. ㉠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문을 찾아 유의어를 적은 것이다.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예문	유의어
①	지방마다 <u>다른</u> 생활과 풍습이 있다.	상이하다
②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u>달라</u> 끝이 없다.	분분하다
③	나의 기대와 <u>달리</u> 여행 내내 비가 왔다.	어긋나다
④	그에게는 아주 <u>다른</u> 그 무엇인가가 있다.	특별하다
⑤	불이 부어 입술이 <u>다른</u> 곳에 붙은 것 같다.	영똥하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은유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인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목표 영역은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개념화된다.

- (1)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 (2) ㉠사랑에 빠졌다.

(1)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이라는 개념을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2)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의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인생'과 '나그넷길', '사랑'과 '물'에서처럼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근원 영역은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또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곧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빠지다'의 경험도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지 그 역은 아니다.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의 여정이 있으며, 그 여정에는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희로애락 등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경우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책략으로, 표현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하고 복잡한 개념에 대하여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은유의 유형에는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적 은유가 있다.

- (3) 논쟁은 전투이다.
- (4) 마음은 그릇이다.

첫째, 구조적 은유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3)에서 '논쟁'은 '전투'라는 개념에 의해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경험의 두 영역 사이에는 긴밀한 구조적 일치 관계가 존재한다. 곧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는 '적군', 반대를 제기하는 것은 '공격', 주장의 고수는 '방어', 주장의 포기는 '항복', 토론의 결과는 '휴전' '승전' 및 '패전'에 해당된다. 이처럼 논쟁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표현들은 '전투'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 곧 물체나 내용물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4)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마음은 구체적인 그릇에 의해 파악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음이 크다/작다', '마음을 닦다'와 같은 표현이 생겨난다.

셋째, 방향적 은유는 상호 대립 관계에 있는 방향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를 들면 '위-아래' 방향과 관련하여 '봉급이 올라가다/내려가다', '저축률이 높다/낮다' 등의 표현이 형성된다. 이러한 은유의 방향은 물건을 쌓을 때 양이 많아지면 더미가 높아지며, 잔에다 물을 부으면 수면이 올라가는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24. 위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유는 인지 책략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 ②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 ③ 수사학에서 다루는 은유를 일상 언어활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④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어 구조화할 수 있다.
- ⑤ 은유는 추상적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을 재료로 사용한다.

25. <보기>는 ㉠을 가능하게 한 ㉡의 요소를 찾아본 것이다.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헤어 나오기 어렵다.  
 ㉡. 해당 요소에 동화되어 간다.  
 ㉢.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여 행동을 만든다.  
 ㉣. 결과적으로 대상 전체가 해당 요소에 잠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분위기가 고조되다.  
 ㉡ 자존심에 금이 가다.  
 ㉢ 오늘 주가는 상승세이다.  
 ㉣ 논지의 허점을 공격했다.  
 ㉤ 의식 수준이 십 년이나 뒤쳐져 있다.

- ① ‘내 마음은 호수다’는 ㉡의 은유 유형과 동일하다.
- ② ㉡의 근원 영역은 ‘그릇’이며 목표 영역은 ‘자존심’이다.
- ③ ㉢는 구조적 은유로, ‘논쟁은 전투이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는 ‘위-아래’, ㉤는 ‘앞-뒤’와 관련된 일상 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이다.
- ⑤ ㉡, ㉢ 모두 존재론적 은유로,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추상적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세조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육신과 그들의 삼족을 멸한다. 이때 박팽년 머느리의 출산이 임박하게 되고, 멸문을 막기 위해 종 부부는 자신의 자식인 ‘창지’와 주인의 자식을 바꾼다. 한편, 유배된 단종에게 왕방언이 어명을 사칭하여 사약을 내린 후, 이 사실을 신숙주에게 알린다. 이 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여 신숙주는 세조에게 어명을 청한다.

들판

소 리 명정(銘旌)\*, 공포(功布)\*가 든다. 앞드려라 -.

사육신이 명정, 공포를 들고 온다.

세 조 어디로 가는 상여인가. 상주는 나서라.

신숙주 (앞드린다.) ㉠전하게서 상주이시오.

세 조 에이 무지한 것 같으니. 기어이 그 어린 것을 죽였다란 말이냐. (칼을 뺏다.) 칼을 받아라.

무리들 명정, 공포로 가로막는다.

사육신 전하, 상중이시오.

세 조 (칼을 떨어뜨린다. 명정을 찢으며 소리친다.) 상여를 돌리거라. 상왕은 생존하시다.

신숙주 ㉡전하, 더 이상 피를 보지 마시오.

세 조 피를 흘릴 것 없다. 상왕은 죽지 않았어.

신숙주 어명을 내리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체 말고 전하게서 상왕께 사약을 하사한다는 어명을 내리고 이를 공포하시오. 상왕께서 전하의 어명으로 명을 거두게 하시오.

세 조 과인이 죽었다고 공포하여라.

신숙주 상왕의 죽음을 헛되이 마시오.

세 조 (비통하여) 싫고도 싫다. 내 결국 저를 먼저 보냈으니 어찌 선왕들 계열에 들겠느냐. 하마 죽지도 못하리라. (소리친다.) 아니 된다. 내 저를 살리리라.

신숙주 전하 -.

명정, 공포가 흔들린다.

세 조 상왕을 내놓아.

신숙주 저들을 버리지 마시오.

사육신 나오리.

세 조 과인을 나오리라고 부르는 너희는 누구냐.

사육신 죽어질 몸들이오.

세 조 너희는 또 왜.

사육신 상왕과 통정을 하였소.

세 조 상왕을 보기보다 반갑구나. 너희가 나를 도와라.

신숙주 전하.

사육신 전하.

단조로운 요령소리

신숙주 어명이시다.

사육신 어명이시다.

㉢오랜 침묵

세 조 과인이 그의 운명을 거두었다. 같이 저들을 보낸다.

명정, 공포가 흐늘거리며 나간다. 무리 중에 종이 강보에 싣 아이를 안고 나선다.

종 상전님.

신숙주 누구냐.

종 이 몸을 벌하시오. 천벌을 받을 죄인이옵니다.

신숙주 상왕하고 통정을 하였느냐.

종 이것이 전에 살아 계시던 상전님네 대를 이를 자손이 온데, 소인이 종의 몸이라 통 먹을 것을 찾아 못 주니 이리다가 죽이면 귀한 가문 씨 말리기 영락없어, 상전님께 도루 바치오니 이것은 살려 주시고 소인은 죽여주시오. 감히 어명을 어겼사옵니다.

세 조 그것이 뉘택 자손인데 네게 말기었더냐.

종 취금헌 박팽년의 손이옵니다.

신숙주 어전이시다. 바로 아뢰어라.

**중** 어명이 무서운 줄 모르옵고.  
**신숙주** 사실이 그러하다면 너희 둘 다 참하리라.  
**중** 사실이오.  
 잠시

**세 조** 어디 보자. 죽지는 않겠다. 뭐라 불렀느냐.  
**중** 없사옵니다.

**세 조** ㉠어명을 어기어 이것이 태어났네. 과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니 어찌겠나. (안고서) 이것의 손이 산호가지와 같으니 일산이라 부르도록 하고 최금현 박팽년의 후손으로 대를 잇도록 하여라. 어명이다.

**신숙주** 전하. (읍한다)

**들판**

**여 중** 창지……. 내 창지, 오장 내 오장, 내 창지를 내놓아. 창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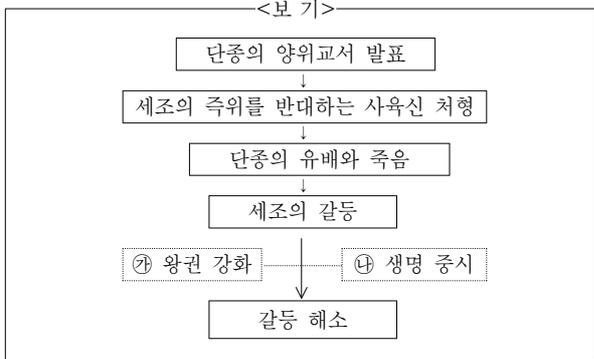
**소 리** 심의산\* 세네 바퀴 감도느니, 오뉴월 한낱꿈 살얼음 집힌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느냐, ㉡님아. 온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 오태석, 「태(胎)」

\*명정(銘旌): 죽은 사람의 관직, 성명 등을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쓴 조기(弔旗)  
 \*공포(功布): 관을 닦는 삼베 형질. 발인할 때 명정과 같이 앞에 세우고 감.  
 \*심의산: 수미산(須彌山), 인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산

27. 다음 중 위 글에 나타난 현대극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현대극에서는 ①논리적인 시·공간을 해체해 의식과 무의식, 정상과 비정상이 한데 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보통명사로 제시함으로써 ②의명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등장인물이 수다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언어는 말장난일 뿐 ③의미 전달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④관객이 연극에 참여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거나 ⑤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28. <보기>는 위 작품 전체의 사건 전개 과정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를 위해 세조는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던 사육신 및 그들의 삼족까지 멸했다.
- ② 세조가 사약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단종의 죽음으로 야기된 ㉢으로 인한 고뇌 때문이다.
- ③ 사육신은 ㉡에 반대하는 인물들이었지만 단종이 죽은 후에는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며 ㉡를 돕고 있다.
- ④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진 박팽년 손의 존재를 세조가 인정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쪽으로 해소되고 있다.
- ⑤ 태줄을 의미하는 '태(胎)'를 제목으로 하여 ㉡보다는 ㉢가 중요하다라는 작가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29. 위 글을 무대에 올릴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중'은 자식을 찾는 어미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는 표정과 목소리로 연기한다.
- ② 조명을 통해 죽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죽음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 ③ '소리'는 특별한 음향 장치를 사용하여 사건 내부의 인물들과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 ④ 명정, 공포 등의 소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암시할 수 있게 한다.
- ⑤ 결말에 사용하는 배경음악은 인물의 갈등이 해결되었으므로 밝고 경쾌한 것으로 준비한다.

30.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조의 혈육인 단종이 이미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어명을 내릴 것을 청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세조의 내적 갈등과 결단을 암시하고 있다.
- ④ ㉡: 어명을 지키지 않은 종과 여중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울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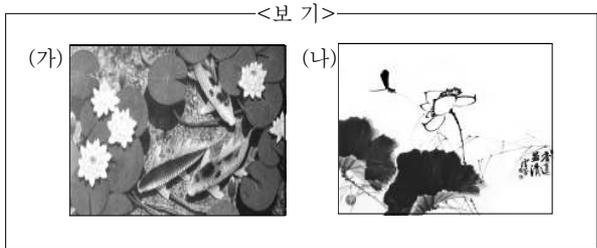
예술은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회화 예술의 표현 문제는 현실 생활에 대한 관찰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중요한 과정은 관찰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동양화는 전면적인 관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담한 취사선택을 한다. 그림으로 표현할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상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관찰에서도 자신의 이상이나 필요에 **㉠** 맞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관계없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심을 덜 갖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정신이 **㉡** 깃들여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들여 표현하고 배경을 포함한 덜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하여 여백으로 대체한다. 그리하여 동양화가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가장 못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그림은 비록 자세하고 정밀하나 생기가 부족한 죽은 그림으로 **㉢** 여겼다.

서양화는 빛의 어두움과 밝음을 관찰하여 명암을 드러냄으로써 그림을 그리고, 동양화는 수묵(水墨)의 진하고 흐린 정도, 선의 가볍고 무거움 등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또한 동양화가들은 각기 다른 시점, 다른 각도에서 제일 강한 인상을 관찰하여, 이를 하나의 화면 안에 돌출되고 과장되게 표현한다. 이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세밀한 관찰 과정을 거쳐 대상의 조작 구조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그리고자 하는 꽃이 무슨 꽃인지, 어떤 색깔인지, 잎이 어떻게 나는지, 꽃받침은 몇 개인지, 꽃술, 꽃대, 꽃줄기는 어떠한지 등 각종 특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관찰법과 조작 구조 표현 방식에 익숙하게 되면 동양화가들은 대상을 떠나 **㉣** 형상기억에 의해 창작 작업을 한다. 형상기억은 경험하였거나 배운 것을 머릿속에 새겨 두었다가 시각적, 청각적 표상을 **㉤** 바탕으로 되살려 내는 심리 과정이다. 기억 속에 남는 형상은 대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화가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로 대상에 **㉥** 열매이지 않으면서도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역대 화조화가들이 화조의 자태를 훌륭히 표현해내고, 풀과 벌레의 느낌을 잘 묘사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상을 떠나 그림을 그린 것과 큰 관계가 있다. 만약 새나 벌레들을 정물처럼 앞에 놓고 그렸다면 비록 빛에 의한 명암이나 형태 등은 될 하나의 착오도 없이 그릴 수 있을지 모르나 생동하는 작품은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형상기억에 의한 그림은 대상을 더욱 생동감 있게 그릴 뿐 아니라 작가의 주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31.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그림을 접했을 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대상을 매우 정밀하게 그렸군.
- ② (나)는 (가)와 달리 중점 대상을 과장해서 표현했군.
- ③ (나)는 (가)와 달리 불필요한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하였군.
- ④ (가)와 달리 (나)는 대상의 조작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사실적인 느낌이 없군.
- ⑤ (나)는 (가)에 비해 작가의 주관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32. ㉠의 특징을 적용한 암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외우는 방법
- ② 역사적 사건을 외울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외우는 방법
- ③ 무지개 색깔을 외울 때 첫 글자만 따서 ‘빨주노초파남보’로 연결해서 외우는 방법
- ④ ‘峰’(봉우리 봉)의 한자를 외울 때 ‘山’(산)을 통해 산을 떠올리고 산봉우리라고 외우는 방법
- ⑤ 법의 5단계인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외울 때 “헌법의 글씨는 명조체를 규칙으로 한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외우는 방법

33.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양화에는 사생법과 묵사법의 두 가지 기법이 있다. 이 두 기법은 동양화를 그릴 때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즉, 동양화는 사물을 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사생법과 기억과 상상으로 보충해서 그리는 묵사법을 병용한다.

- ① 동양화에 대한 설명이 기억에 의존하여 그리는 방법에만 치우쳐 있다.
- ② 사생법과 묵사법의 병용 방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 ③ 동양화에 스며있는 정신적 의미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설명하고 있다.
- ④ 동양화를 그리는 기법은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⑤ 동양과 서양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차이점만 부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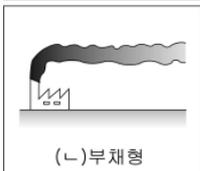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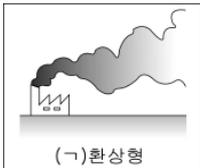
34. ㉠~㉥와 바뀌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부합(符合)하는                      ② ㉡: 수용(受容)되어
- ③ ㉢: 간주(看做)했다                      ④ ㉣: 토대(土臺)로
- ⑤ ㉤: 구애(拘礙)받지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장 굴뚝에서 방출된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은 기상이나 지형 조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확산되거나 한 지역에 농축된다. 대기권 중 가장 아래층인 대류권 안에서 기온의 일반적인 연직\* 분포는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대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류 운동에 의해 대기 오염 물질이 대류권에 확산된다.

반면,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한 경우에는 공기층이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 대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류권의 정상적인 기온 분포와 다른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 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공기층을 역전층이라 한다. 기온 역전 현상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지표가 눈으로 덮이는 겨울, 호수나 댐 주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역전층 상황에서는 지표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안개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오염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스모그가 된다. 안개는 해가 뜨면 태양의 복사열로 지표가 데워지면서 곧 사라지지만, ㉠스모그는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 양상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공장의 오염 물질은 연기 형태로 대량 방출되므로 오염 물질의 이동 양상을 관찰하기 쉽다. 연기의 형태는 기온과 바람의 연직 분포에 따라 다른 모양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대기가 불안정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대류 혼합이 심할 때에는 그림 (A)과 같이 연기의 형태가 환상형을 이룬다. 또, 날씨가 맑고 따뜻할수록 대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가 빨리 분산된다. 반면, 그림 (B)과 같이 평평하고 반듯한 부채형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많이 나타난다. 밤이나 새벽에는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열이 거의 없으므로 지표의 온도가 내려가 역전층이 형성되고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지형이나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난류도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 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람이 건물에 부딪쳐 분리되면 건물 뒤에는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공동(cavity)이 형성된다. 공동 부분과 바람의 주 흐름 간에는 혼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동 부분에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가면 장기간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오염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은 높은 언덕의 뒷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다.

오염 물질의 이동 양상은 공장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건물 앞에 굴뚝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자. 굴뚝이 건물보다 높으면 연기가 건물에 부딪치지 않으므로 오염 물질이 멀리까지 날려가지만, 굴뚝이 건물보다 낮으면 오염 물질이 건물 뒤편의 공동 부분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건물이나 건물 가까이에 굴뚝을 세울 때에는 통상적으로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으로 세워야 한다.

\*연직: 수직

35.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형성 원리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이 나타나는 원리 및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대상과 관련한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비교 분석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을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대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다.

\* <보기>를 읽고 36번과 37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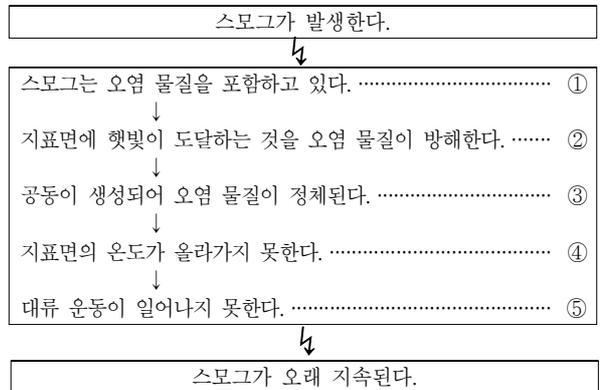
열용량이 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도심은 녹지가 많은 인근 교외 지역에 비해 지표면이 태양 열에 의해 쉽게 달궈진다. 더욱이 도시 안에는 공장, 주택, 자동차 등이 많아 연료가 연소될 때 많은 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의 대기는 주변 지역보다 2~5℃ 가량 높은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섬 효과'라 한다.

열섬 효과가 나타나면 도심의 하늘을 뜨거운 공기가 뚜껑처럼 덮게 되어 공기의 흐름이 정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물질들도 함께 도심 상공에 체류하게 되어 오염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공에 올라간 오염 물질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열을 감소시켜 공기의 연직 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그 결과 도시의 오염은 더 증가하게 된다.

36.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섬 효과는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겠군.
- ② 열섬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태양 복사열 때문이군.
- ③ 열섬 효과가 나타나는 곳의 대기는 기층이 안정한 상태이겠군.
- ④ 열섬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역전층에 의한 안개가 발생하지 않겠군.
- ⑤ 기온 역전 현상과 열섬 효과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대기의 연직 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군.

37. 다음은 ㉠의 결론 추리 과정을 그린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통해 볼 때, 추리 과정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8~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海溢)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A]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나)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답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  
 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  
 고 나이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  
 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다 착해서 세팍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괴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膳友辭)-함주시초(咸州詩抄)4」

\*세팍은: 매우 기세가 역세고 날카로운  
 \*선우(膳友): 반찬 친구 또는 친구에게 드림

(다) 新筍濁酒如種白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大碗麥飯高一尺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飯罷取脚登場立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雙肩漆澤翻日赤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呼邪作聲舉趾齊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須臾麥穗都狼藉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雜歌互答聲轉高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但見屋角紛飛麥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觀其氣色樂莫樂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了不以心爲形役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樂園樂郊不遠有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何苦去作風塵客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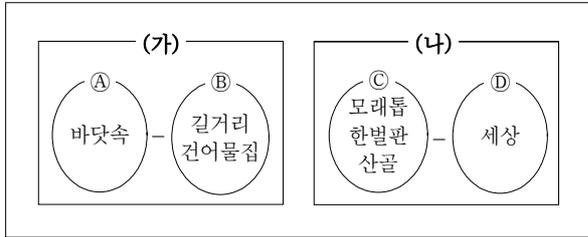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리  
고 있다.
- ③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  
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의지를 나  
타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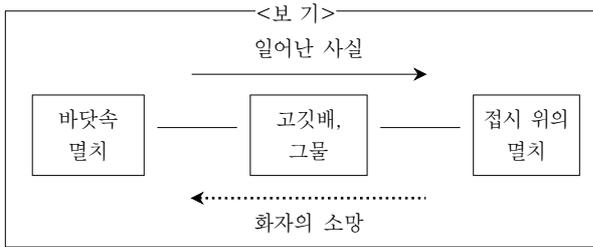
- ① ㉠은 ㉢과 달리 반(反)생명성과 연관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 계절감을 부각시켜 화자의 정서 변화에 주목하  
게 한다.
- ③ ㉠, ㉡은 ㉢, ㉣과 달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로 그려  
져 있다.
- ④ ㉠과 ㉡ 모두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시점보다 과거에 존재한  
것들이다.
- ⑤ ㉡은 축약적 심상의 측면에, ㉢은 시각적 심상의 측면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40. 다음은 (가), (나)에 나타난 공간을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달리 ㉢는 화자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간이야.
- ② ㉤과 달리 ㉡는 시적 대상이 피할 수 없는 공간이야.
- ③ ㉠은 ㉡와, ㉢는 ㉤와 각각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이야.
- ④ ㉠, ㉢는 화자가 긍정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지.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서 ㉡로, ㉢에서 ㉤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어.

41. <보기>는 [A]에 나타난 화자의 발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발상이 드러난 것은?



- ①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던 화가의 바람이 녹아들어 있다.
- ②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흘린 눈물 속에는 지난 날의 한 맺힌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다.
- ③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원 사자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푸르고 넓은 야생의 초원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 ④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애벌레의 작은 주름들 속에는 언젠가 높은 하늘을 날아오를 아름다운 날개가 숨어 있다.
- ⑤ 이른 봄의 꽃봉오리 속에는 머지않아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활짝 꽃을 피울 그 어느 따뜻한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

42. (나)를 토대로 단편 소설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계획을 세웠을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배경: 시간 - 1920년대 말(과거), 1930년대 말(현재)  
공간 - 함경도 지방 어느 시골
- 중심인물  
나 - 달리기 실력이 뛰어나 '쌍쌍이'라고 불리는 산골 소년  
만복 - 늘 쌀밥 타령을 해 '흰밥풀'이라 불리는, 농사일을 돕느라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소년  
봉식 - 두 눈이 가자미처럼 한데 몰려 있어 '가재미눈'이라 불리는, 굴 캐는 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년
- 줄거리  
현재 - '나'는 겨울날 혼자 골방에 앉아 조촐한 저녁을 먹고 있다. 문득 과거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과거 - 배고픔과 추위를 함께 나누었던 '나', '만복', '봉식' 삼총사는 산, 들, 바다로 삶의 터전을 넘나들며 돈독한 우정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총사 모두는 일본군에 의해 서로 다른 곳으로 강제 징집되어 갔다. 그 뒤로 '만복'과 '봉식'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 밥상 위의 조촐한 반찬을 바라보며 '나'는 두 친구를 그리워한다.

- ① (나)에 나타난 시간 흐름의 특징을 역순행적 구조로 잘 살려야지.
- ② (나)의 중심 소재들을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활용해야겠군.
- ③ (나)와는 다르게 특정한 시대의 아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④ (나)에서 의인화된 대상들의 주된 특징을 잘 살려 중심인물로 형상화해야지.
- ⑤ (나)의 화자가 삶을 대하는 당당한 태도가 소설 속 '나'에게도 드러나도록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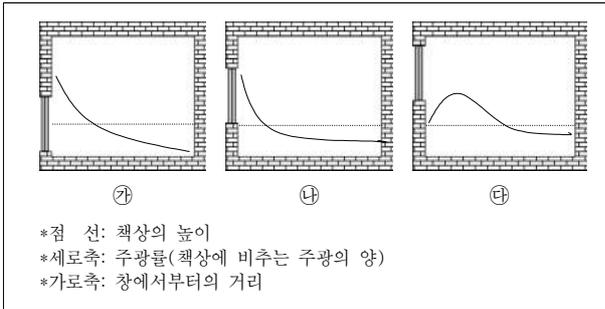
43.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묘사를 통해 생동감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복잡한 심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 즐겁게 노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십만 년간 인류는 낮의 밝은 자연광 아래서 일하고 밤에는 자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전등이 보급되면서 밤에도 낮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전등이라고 부르는 인공 조명은 빛의 조도 조절, 야간 조명, 기후나 기상에 따른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인공광은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 자연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적 적응 능력을 필요로 하며, 자연 채광이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는 상황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인공광은 변하는 주광\*과 달리 시간의 제약 없이 빛의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인간의 건강과 안락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눈과 자율신경을 통한 인간의 정신적·생리적 삶의 리듬은 일별, 월별로 변화하는 주광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은 인공광보다는 주로 주광에 익숙한 상태이며, 인간의 활동성은 주광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인간이 거주하는 실내는 주광에 의해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실내 공간이지만 폐쇄적이지 않고, 실외의 자연과 연속된 느낌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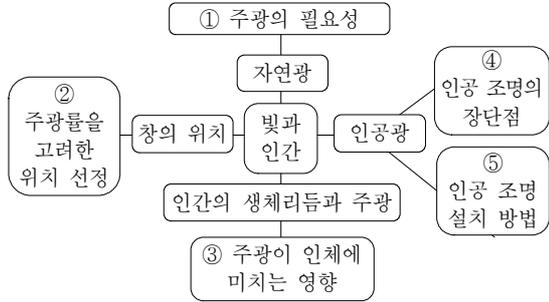


실내 공간의 조도(밝기) 분포는 창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㉑, ㉒, ㉓는 창의 위치에 따른 실내의 주광률 변화이다. 주광률은 실외의 밝기에 대한 실내 밝기의 비율을 의미하며, 빛이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위의 그림처럼 주광률 분포가 나타난다. 창의 위치가 ㉑처럼 아래에 있을 경우 창가의 주광률은 상당히 높지만 창에서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주광률이 감소하여 실내 공간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창 가까운 곳에만 빛이 들어오고 창에서 멀어짐에 따라 실내에 도달하는 빛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㉒처럼 창의 위치가 높아지면 빛이 실내 깊숙이까지 입사하여 창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주광률 차이가 ㉑보다 줄어든다. ㉓의 경우는 창 바로 아래쪽은 빛이 들어오는 양이 ㉑, ㉒ 창에 비해 적어 조금 어두울지 몰라도 창에서 멀어짐에 따라 주광률이 다소 상승하여 실내 공간의 주광률이 비교적 균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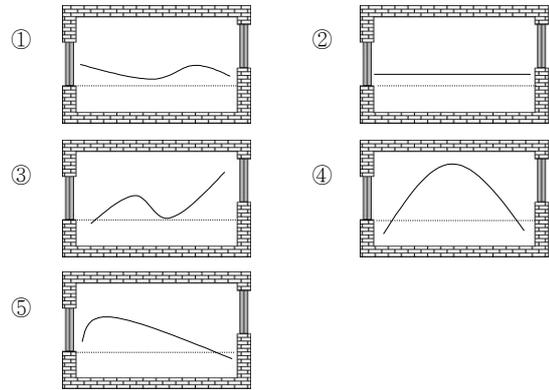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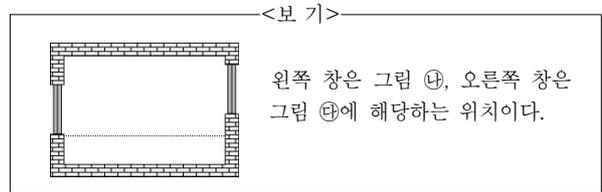
이와 같은 원리로 ㉑마주보고 있는 양쪽 벽에 창이 설치된 경우는 한쪽 벽에만 창이 설치된 경우보다 주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광률이 좀 더 균등하게 분포된다. 양쪽 창인 경우 실내의 중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위치에서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공간의 전체 주광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광(晝光): 태양광선에 의한 낮 동안의 빛 또는 그런 밝음.

44. 위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 <보기>는 ㉑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경우에 예상되는 주광률 분포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6. 위 글을 읽은 후 다음 물음에 답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실내 조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낮에 충분한 주광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 크기를 공간에 맞게 조절한다.
- ② 빛에 민감한 인간의 시신경을 고려하여 인공광을 활용해 공간의 안락함을 유지한다.
- ③ 인간의 정신적·생리적 삶의 리듬을 고려하여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 ④ 실내 공간의 주광률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연 채광을 차단하고 인공 조명의 활용 비율을 높인다.
- ⑤ 창의 위치를 조절하여 공간의 주광률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인공 조명을 설치하여 주광과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타남주가 작은 다람쥐에게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니 좌우의 기물, 주옥, 패물, 초구, 단필 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털렸음을 알았다. 상하가 놀라 당황하며 얼굴색이 달라지고 있는데, 한 작은 다람쥐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하였다.

“바위 위에 쌓아 놓은 알밤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타남주가 이 말을 듣고는 뼈에 사무치듯 크게 울부짖었다.

“주옥과 보패야 설령 도적을 맞았을지언정 어찌 말할 것이랴!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는 시절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쌓아두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죄다 잃고 말았단 말인가! 이 같은 흉황한 때에 장차 수많은 죽음이 생황을 지탱하고 보존할 방도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좌중의 여러 무리들도 슬퍼하고 놀래어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것이 마치 병어리들의 무리와 같았다.

이에, 타남주는 다시 한참 만에 말하였다.

“근래 들으니, 농서 소토산(小坭山)의 절벽 밑에 새로 모여든 강도 중 서대주란 이름난 놈이 도적놈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는 주군현읍(州郡縣邑)에서부터 아래로는 마을의 부호나 서인에 이르기까지 절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가 물건을 잃은 것도 실로 다른 놈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놈의 소행일 것이다. 즉시 원님께 고소장을 먼저 올려, 하나하나 잃고 그름을 따지어 바로잡으시도록 해야겠다.”

좌중에 있던 한 늙은 다람쥐가 황급히 말하였다.

“주옹(主翁)께서 하신 말씀이야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그 도적질한 바를 밝히어야 도적이 곧 굴복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저 도적을 잡는 법은 이전의 행각으로 잡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그 도적을 보지도 않고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를 중 영리하고 판단력 있는 자가 서대주가 있는 소굴로 가서 그 허실을 살펴 들은 연후에 고소를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략 줄거리] 타남주는 서대주 소굴에 작은 다람쥐를 보내 절취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 고소장을 올린다. 이에 원님은 사령에게 서대주를 붙잡아 올 것을 명령한다. 붙잡혀 온 서대주는 타남주와 함께 원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뒷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근년 이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가는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맹랑한 말이옵니다.”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흙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벌어먹는 놈의 밥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습니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걷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왼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A]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피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깃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뽀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쇠운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둬거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원님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 ② 타남주는 서대주가 절취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③ 서대주는 원님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 ④ 서대주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을 부호의 재물을 탈취했다.
- ⑤ 타남주는 모든 것을 도둑맞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8. 다음은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설정한 것이다.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타남주 무리가 도둑맞은 후의 장면
- #2: 타남주 무리가 회의하는 장면
- #3: 서대주가 원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
- #4: 타남주가 매를 맞는 장면

- ① <#1>에서 절취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둑맞기 전후의 상황을 오버랩한다.
- ② <#1>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슬픈 느낌의 배경음악을 사용한다.
- ③ <#2>에서 늙은 다람쥐가 불러주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타남주를 클로즈업한다.
- ④ <#3>에서 서대주의 변론이 길기 때문에 에피소드별로 나누어 삽입 화면으로 보여준다.
- ⑤ <#4>에서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타남주가 맞는 모습과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는 서대주의 모습을 분할 화면으로 보여준다.

49.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하고 있다.
  - ②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0. <보기>는 작가가 작품 뒤에 덧붙인 글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후에 서대주가 수백의 여자를 취하여 자손이 번성하니, 주군(州郡)·현읍(縣邑)·여항(閭巷)·향곡(鄉谷)에 살지 않은 자가 없고, 그들은 다 도적질을 하여 살았다. 이에, 세상의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중들이 귀를 만나기만 하면 모두 죽이니, 서대주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해친 것에 대한 응보가 아니겠는가! 반면, 타남주는 본래 선량하고도 곧은 부류인지라, <중략> 사람들은 간혹 다람쥐를 보면 예뻐하지 해 치려는 뜻이 없으니, 실로 이는 타남주의 음덕에 대한 보답 이리라. 이로 본다면, 덕을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덕을 저버리는 자는 망한다는 것은 실로 거짓말이 아니다.

대저 서대주는 간사한 말과 뜯소문으로 교묘하게 원님을 속여서 죄가 있었음에도 죄를 면하고, 타남주는 성품이 곧아서 변명을 하지 않아 죄가 없었음에도 죄를 받았으니, 원님의 송사(訟事) 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랴! 대개 송사 처리가 이같이 어려우니, 벼슬을 하는 자가 살피지 않으면 옳겠는가!

- ① 타남주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려 덕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군.
- ② 소설의 결말과 다른 후일담을 통해 당대 사회상을 고발하고자 했군.
- ③ 동일한 행동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군.
- ④ 송사의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판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했군.
- ⑤ 나중에 쥐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보니,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